

# 불화 속에 모던보이 등장 '눈길'

불교중앙박물관 흥천사 감로왕도 공개... 4월 12일까지 전시



1939년 당시의 시대상을 담은 흥천사의 감로왕도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공개된다. 사진은 감로왕도의 부분도

1939년 당시의 모던보이, 스케이트 타는 소년 소녀, 코끼리가 등장하는 서커스단이 묘사된 감로왕도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테마전 '불화에 담긴 근대의 풍경과 사람들'에서 흥천사 감로왕도가 특별공개 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학예연구사는 "감로왕도라는 불화의 틀에 일제강점기의 풍속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매우 재

미있는 그림이다. 이는 전통 불화에 근대 풍경을 서양화 기법으로 담은 '모던 불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색다른 자료"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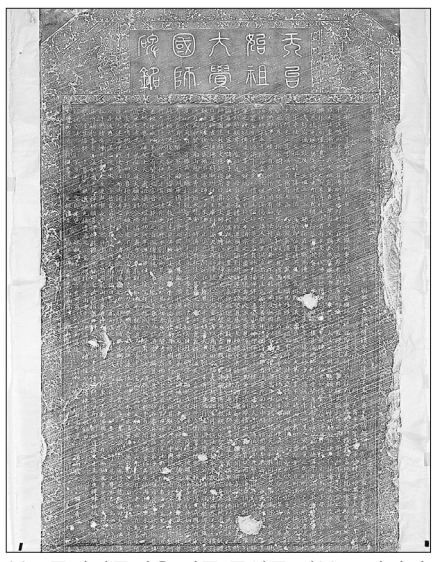
여기에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전화하는 남자, 전봇대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기술자, 산에서 떨어져 죽는 등산객, 코끼리가 등장하는 서커스, 재판 장면 등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그려져 있다. 또한 비행기와 탱크가 등장하는 전쟁

장면을 통해 일제강점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흥천사 감로왕도는 1939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근대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풍속화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화의 하부에 표현된 장면들은 31개의 구획을 나누고 각각 하나의 주제를 가진 화폭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장면은 서양화법을 이용해 표현했는데, 당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의 성과를 이번 테마전에서 공개한다. 탁본 조사의 첫 해였던 작년에는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 중요 금석문 40여점을 탁본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아홉 점의 탁본을 전시한다. 국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와 비단을 이용한 탁본을 통해 우리나라 금석문의 예술성과 역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02)2011-1960 정혜숙 기자

## 전통 불화에 서양화 기법 사용 일제 강점기 풍속 사실적 묘사 금석문 탁본조사 성과물도 전시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의 성과를 중 중요 탁본 9점을 공개한다. 사진 왼쪽은 대각국사비 오른쪽은 원흥국사비

#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 총집합 한다

롯데아트페스티벌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롯데아트페스티벌이 올해로 2회를 맞는다. 조계종과 서울시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서울국제불교박물관과 함께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의 총집합이라는 슬로건을 건 '2015롯데아트페스티벌'은 전통불화부터 동시대와 소통하며 나아가는 현대불화까지 불교미술 총체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해외 작가의 참여다. 2015롯데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독일의 짜이트 주 제렌 갤러리(Zeit Zu Sehen Gallery)는 불교와 선(禪)을 주제로 한 현대적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영남 스님이 운영하는 영남한지미술관 역시 우리 한지를 재료로 제작한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롯데아트페스티벌의 국제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기획전도 눈길을 끈다. 현대미술로 보는 불화의 지혜 스마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50만원전 △서울의 장인전으로 구성 불교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불교아트페스티벌 김해다 아트디렉트는 "올해는 57개 부스, 약 80여 작가가 참여한다. 작년 대비 약 1.5배 확장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메인 전시에는 자수공예가 이정숙 작가, 현대적 불상 조각가 서철교 작

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정숙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에게 선물한 자수보자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근엄한 보살상을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표현하면서도 전통불화에서 사용된 기법과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김지원 작가, 3003나한을 제작해 주목받고 있는 적산 스님 등 다양한 작가가 새롭게 롯데아트페스티벌을 빛낼 예정이다.

## 해외 작가 참여 세계화 도모 57개 부스·약 80여 작가 작품 50만원전, 구매와 기부 동시에

지난해 만화전을 기획해 큰 관심을 모았던 롯데아트페스티벌은 올해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는 바로 현대미술로 보는 불화의 지혜 '드림 리얼리티(Dreaming Reality)'로 국내 유명작가 3명의 작품을 통해 '공(空)' 사상을 보여준다. 움직이는 조각, 영상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오감만족을 보여줄 이 코너에서는 미



2015롯데아트페스티벌이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숭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승호, 왕지원, 김신일 작가가 참여한다.

김해다 아트디렉트는 "다양한 매체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불교의 동시대적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문학적 성찰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아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50만원전'은 작품도 사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해 합리적 가격에 작품성 있는 불교·전통미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

록했다. 특히, 수익금의 일부는 NGO단체에 기부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김해다 아트디렉트는 "본 전시에는 많은 작가들이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에 동참했다. 작품 가격을 30% 이상 낮추어 출품했으며 전통 불화, 민화, 유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불교·전통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작품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NGO단체에 기부, 예술을 통한 기부 효과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02)2231-2013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수월 스님, 천재일우 콘서트 서울 공연

판소리·뮤지컬 등 이색 구성 4월 8일 KBS홀에서 공연 장애우 100명 초대 '훈훈'

'우리말 반야심경'에 클래식을 입힌 수월 스님의 두 번째 콘서트 '천재일우'가 4월 8일 서울 KBS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부산 공연에 이은 두번째 콘서트다.

수월 스님은 "지난 공연 후 현대식 불교 문화를 개척했다는 평가 많은 관객들의 갈채에 힘을 얻었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조계종 광림사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엄숙한 느낌의 '예경제불가'로 시작해, 원효 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우리말로 해석한 소리꾼 박성진 씨의 판소리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범구경 합창,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뮤지컬



수월 스님이 4월 8일 KBS홀에서 판소리, 뮤지컬 등으로 구성된 천재일우 콘서트를 갖는다.

'님의 침묵'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장애우 100여 명을 초대 쇼의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사상구 염궁동 백석사 주지이자 BBS부산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자인 수월 스님은 동국대 철학과 재학 시절부터 1985년에 우리말 반야심경을 발표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스님의 공연은 당시 불교 대중음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활동을 접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 해인사로 출가 대성암, 해인사, 보현암, 보덕사 등 제방선원에서 10년 동안 참선 수행했다. 지난 2013년 '물같이 바람같이'라는 앨범을 내고 찬불 포교의 원을 세우고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02)2644-8968 정혜숙 기자

# BBS라디오 상반기 개편 수행 프로그램 강화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은 2월 9일 상반기 라디오 개편을 한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된 경전 구절을 낭독으로 함께 하는 '불자의 향기'(매일 밤12시)와 화엄경, 천수경, 아미타경 등을 독경하는 '한밤의 독경'(매일 새벽 1시)을 편성해 불자들의 재가 수행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했다. 또 주말에는 도영 스님의 '한 낮의 음악여행'(토·일 낮 12시 10분)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 중 '마음의 샘터'는 청취자의 성원에 힘입어 주간으로 확대 편성 매일 오후 10시에 만날 수 있다.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알려주던 '명상카페'는 토·일 오전 7시로 당기고, '찬불의 노래'를 오전 8시로 변경해 주말의 아침 새벽기도와 불전공부, 설법, 명상, 찬불로 이어지는 불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BBS-TV로 만나던 '무명을 밝히고'(매일 오후 5시 5분)의 법문도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 틀에박힌 성지순례 이젠 그만!

부처님 + 성지순례 + 불교문화교류행사 1석 3조

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라오스·네팔 (1회차)  
태국·베트남·인도·부탄·인도네시아 (2회차)

부처님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큰스님 사찰 방문·고아원봉사·오지학교 교육지원사업·학교 신축 보수공사·불교대학 방문봉사 및 식수정수시설지원·각 종단 최고지도자 종교성경관이나 종단장 및 각 나라 최고지도자와 대담 진건하여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방문국 불교문화 교류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종단 사찰 스님 재정에 맞추어 맞춤형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드립니다.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무국  
문의전화 1644-9079 상담자 직통 010-8288-1833 일광봉사

후원 미얀마종교성 | 스리랑카종교성 | 캄보디아승왕청 | 라오스종교부  
네팔종교성 | 대한불교원각조계종 | 시)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여성가족부)  
주)어안상조 | 주)씨지투어 | 국제불교문화교류협회

## 마음을림의 서사시

제자들을 향한 선사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는  
올해 꼭 소장해보고 싶은 책

### 무불취

자성은 본래로 고요하니  
일으킴도 없고 움직임도 없도다  
.....  
내가 있어 내가 있음이니  
내가 없으면 누가 곁에 있으랴  
수좌여 그 무엇도 취함을 두지말라  
취하지 않음마저 사라지면  
열반에 이르리라.

(본문 중에서)

신서판 260쪽 | 값 9000원 | 정우서적 | ☎ 02)720-5538